

천부경(天符經)의 본의해석(本意解釋)

이 천 효*

〈목 차〉

- | | |
|---------------------|-----------------|
| I. 들어가는 말 | 1. 천부경 이해의 기본 틀 |
| II. 원문해석의 한계 | 2. 天符經 原文解釋 |
| III. 천부경 문헌의 해석적 한계 | V. 나오는 말 |
| IV. 石谷 李圭峻의 天符經 解釋 | Abstract |

천부경(天符經)의 문헌(文獻)

주문헌¹⁾ :

- ① 石谷 李圭峻, 「천부경」解²⁾

* 동부산전문대학 문헌정보학과 부교수

- 1), 3) 이 논문에 있어서 '주문헌'(主文獻)이란 필자가 천부경을 해석하는데 근본바탕이 된 문헌을 의미하고, '참고문헌'(參考文獻)이란 주문헌을 연구하는데 도움을 주는 문헌으로써 필요에 따라서 인용 혹은 참고한 문헌을 뜻한다.
- 2) 「천부경」(天符經) 81자가 새겨진 금석문이 1916년 백두산에서 발견되었다. 그러나 당시 일반 사람중에는 천부경이 내용면에서 어려웠던 까닭에 어느 정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천부경을 石谷 李圭峻 先生에게 보여주자, 즉석에서 방점을 찍고 정확한 의미를 찾아냄으로써 주위 사람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 그 이후부터 石谷 李圭峻의 天符經 解는 원문 그대로 無爲堂 李元世 先生의 친필에 의하여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

참고문헌³⁾ :

- ① 李源善, 「天符經」解釋 (上)⁴⁾
- ② 權泰勳, 天符經의 비밀과 백두산족 文化(서울 : 정신세계사, 1989) ; 총 455p.
- ③ 金永毅, 「天符經」解⁵⁾
- ④ 金桂鴻, 天符經과 宇宙變化 : 易經으로 본 天符經(성남 : 창원출판사, 1990) ; 총 304p.
- ⑤ 최동환, 천부경(서울 : 하남출판사, 1993) ; 총 388p.
- ⑥ 趙英武, 韓國原始知性和 天符美學(서울 : 문화일보, 1995) ; 총 283p.

I. 들어가는 말

1980년대 이후부터 우리의 전통문화와 사상 등을 우리의 관점에서 올바르게 조명하고자 하는 노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움직임에 부응하여 뜻있는 여러 학자가 천부경(天符經) 81자의 근본을 탐구한 결과물 1권의 책으로 출판하는 행위는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만 거기에 담겨진 학자의 의견이 논리적 설득력을 가지고 있느냐는 점이 문제가 될 따름이다.

- 4) 국학자(國學者)인 李源善의 천부경(天符經)에 대한 연구논문 별쇄본을 無爲堂 李元世 先生으로부터 필자가 입수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이 논문이 게재된 잡지의 서지사항을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 다만 李源善 이 천부경에 대하여 수십년간 연구한 결과를 어떤 연구소가 발행하는 학술적 잡지에 200자 원고지 140매의 분량을 2회에 걸쳐 게재한 것으로 보인다. 필자가 입수한 논문은 1958년 발표된 1회분(上)에 해당된다.
- 5) 이것은 權泰勳의 「天符經의 비밀과 백두산족 文化」에 게재된 내용으로서, 원래 「한국 명저전집」에서 인용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에 대한 서지사항이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현재 천부경과 관련된 책이 여러 권 나와 있으나 근본적으로 천부경 원문해석보다는 학자의 주관적 의견이 게재된 주해(註解)에 집착함으로써 그 본의를 캐내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필자가 될 수 있는 한 원문해석에 정성을 쏟아 그 요지를 확인하고자 하며, 해설은 간단명료하게 하고자 한다. 어디까지나 필자는 이 논문을 통하여 천부경 해석에 대한 하나의 의견을 제시하는데 불과하다. 따라서 앞으로 필자의 의견을 다른 학자의 것과 견주어 그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제3자의 학적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II. 원문해석의 한계

천부경(天符經) 연구에서는 가장 먼저 천부경 81자에 대한 본의해석(本意解釋)이 선행되어야 한다. 더우기 그 해석은 명석판명하므로 군더더기가 끼어들 수가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 천부경 연구자의 경우, 원문해석을 통한 요지확인보다는 천부경을 연구자 나름대로 풀어 헤치거나 요지와는 거의 관련이 없는 내용을 장황하게 늘어 놓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다. 따라서 천부경 해석에 있어서 그 논리적 기준은 바로 연구자 자신이라는 얘기다. 그러므로 연구자의 자의적 해석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한마디로 천부경 해석에 있어서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연구자가 이른바 깨달음의 경지에 이른 후 유불선을 하나로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가 갖춰져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연구자가 그러한 경지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적어도 천부경 해석행위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나 미안한 마음을 최소한 가지는 것이 옳다고 본다. 필자 역시 그러한 경지가 결코 아니기 때문에 이 논문을 씀에 있어서 커다란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바이다.

언급한 바와 같이 천부경 원문해석에 있어서는 그 근거가 되는 잣대가 중요하므로 여기서는 石谷 李圭晚의 天符經 解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이 논문에서는 「石谷의 天符經 解」란 자료발굴의 의의가 사뭇 크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동양철학적 입장에서 본격적 천부경 해석은 앞으로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Ⅲ. 천부경 문헌의 해석적 한계

1. 기존문헌의 해석상 문제

천부경의 본질적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미 설명한대로 천부경의 본의해석에 따른 연구자의 올바른 관점확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천부경 문헌에 나타난 여러 학자의 해석은 각양각색으로 논리적 설득력이 부족한 백가쟁명식이 아닌가 한다.

원래 해석에 있어서는 해석자의 주관적 개념이 투영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주관적 해석이 학적 타당성을 지니지 못할 경우에는 오히려 그것이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것이다. 때문에 천부경 해석에 있어서는 천부경에 대한 해석자의 올바른 견해가 정립되지 않으면 안된다. 만일 해석자의 확고한 견해가 확립되지 않았다면 쉽사리 천부경 해석에 손을 대어서는 안 될 줄 안다. 왜냐하면 정제되지 않은 여러 학자의 의견은 손쉬운 책의 출판을 통하여 독자에게 전달됨으로써 정신적 혼란이나 폐해를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천부경 문헌에 나타난 해석상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꼬집어 낼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동양사상의 기본적 배경이나 이와 관련된 논의의 전개가 부족하다.

둘째, 비록 천부경의 길이가 81자로서 짧다고는 하지만, 우주와 인생의 원리를 최대한 압축시켜 놓았기 때문에 이를 쉽게 풀어낼 수 있는 정확한 해석능력이 무엇보다도 요구된다. 그러나 기존문헌에 대한 해석의 질적 수준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셋째, 엄밀한 의미에서, 천부경 연구자는 천부경 해석과 관련, 명석하고 분명한 것만을 취함으로써 착각과 편견을 배제하지 않으면 안된다. 바꿔 말하면 천부경 해석자의 사유가 정밀하지 못한 탓에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함으로써 그만큼 논리적 설득력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넷째, 천부경 해석에 있어서는 가장 먼저 방점 즉 끊어 읽기가 정확하게 이뤄져야 한다. 방점에 의하여 천부경이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져서 각 부분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천부경에 대한 정확한 방점이야말로 천부경의 본의해석과 직결되는 것이다.

만일 방점이 부정확하다면 각 부분의 해석이 달라지므로 천부경의 본질적 내용을 파악하기란 어렵다. 현재 천부경 문헌의 방점은 연구자마다 다르다. 연구자의 천부경에 대한 본의해석이 전부 다르다는 뜻이다. 바로 이런 문제로부터 본의를 상실한 자구해석, 장황한 설명, 착각, 편견 등과 같은 모든 혼란이 야기된다.

2. 각 문헌의 방점비교

필자는 천부경의 연구가 방점, 직역, 약간 의역, 완전의역, 해설 등에 걸쳐서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천부경의 방점과 관련하여, 일찌기 서화담이 방점을 찍었으나 그 전체적 의미가 명쾌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화담의 제자인 이토정이 방점을 그대로 사용, 이것이 몇백년동안 통용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의미소통이 가능토록 방점을 고친 사람이 바로 石谷 李圭峻 先生이다. 한편 李源善의 방점도 서화담의 것과 동일하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천부경 해석의 출발점이 되는 방점을 표로 만들어서 비교하고자 한다.

천부경 전문(天符經全文)

一 1 始 2 無 3 始 4 一 5 析 6 三 7 極 8 無 9
 靈 10 本 11 天 12 一 13 一 14 地 15 一 16 二 17 人 18
 一 19 三 20 一 21 積 22 十 23 鉅 24 無 25 匱 26 化 27
 三 28 天 29 二 30 三 31 地 32 二 33 三 34 人 35 二 36
 三 37 大 38 三 39 合 40 六 41 生 42 七 43 八 44 九 45
 運 46 三 47 四 48 成 49 環 50 五 51 七 52 一 53 妙 54
 衍 55 萬 56 往 57 萬 58 來 59 用 60 變 61 不 62 動 63
 本 64 本 65 心 66 本 67 太 68 陽 69 昂 70 明 71 人 72
 中 73 天 74 地 75 一 76 一 77 終 78 無 79 終 80 一 81

방점위치 학자	5	8	11	14	17	20	24	25	28	31	34	37	41	44	45	46	47
	48	49	50	52	55	56	59	61	64	66	67	69	70	71	73	76	
李圭喚	○	○	○	○	○	○	○		○	○	○	○	○		○		
權泰勳	○	○	○	○	○	○		○	○	○	○	○	○	○			○
李源善	○	○	○	○	○	○	○		○	○	○	○	○			○	
金永毅	○	○	○	○	○	○	○		○	○	○	○	○		○		
趙英武	○	○	○	○	○	○	○		○	○	○	○	○		○		
최동환	○	○	○	○	○	○		○	○	○	○	○	○		○		
金桂鴻	○	○	○	○	○	○	○		○	○	○	○	○		○		

IV. 石谷 李圭峻의 天符經 解釋

천부경의 본질적 의미파악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동양사상이나 동양철학 즉 유교, 불교철학, 선 등에 대한 어느정도의 사전지식 이른바 「선이해」(先理解)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石谷 李圭峻 先生의 생애와 사상을 살펴본 후, 천부경의 본의를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한 순서라고 생각한다.

1. 천부경 이해의 기본 틀

1) 石谷의 생애와 사상

李圭峻 先生의 자(子)는 숙현(叔玄)이며, 호(號)는 석곡(石谷)이다. 李圭峻 先生은 1855년(哲宗 乙卯) 경북 迎日郡 夫山面(東海面) 林谷里에서 탄생한 月城人으로서 훗날 석동(石洞)에 이사하여 남은 일생을 보냈다. 그런 까닭에 李圭峻 先生은 스스로 石谷이란 호를 지었다. 石谷 李圭峻 先生은 1923년(發亥) 향년 69세로서 세상을 뜨고 말았다.

石谷은 원래 중인출신으로 집이 극빈하여 부모나 스승에게 공부를 연마할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거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石谷이 스스로 학문의 근본을 터득한 것을 보면, 이른바 '배우지 않아도 스스로 통하여 아는' 「생이지지」(生而知之)가 아닌가 한다.

石谷은 약 30세를 전후하여 비로소 책을 처음 본 후 몇년 안되어 공부에 대한 물미가 완전히 든 것으로 보인다. 石谷의 수제자로 유일한 생존자인 無爲堂 李元世 先生에 의하면, 石谷이 직접적으로 공부에 접하게 된 동기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미 石谷은 젊은 나이에 두 눈의 정기기 너무나도 강열하여 스스로 한 쪽 눈을 찢어 실맹케 하였다. 石谷이 공부하기에는 너무 늦은 나이인 약 30세 때 스승을 찾기 위하여 서울에 머물고 있던중 안면이 전혀없는 어떤 사람을 우연히 만나 그의 집에서 3일간 유숙(留宿)하였다. 그러자 그 집 주인이 石谷의 외눈과 모습 등을 감안하여, 石谷에게 성씨가 李氏가 아니냐고 물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집 주인은 그의 아버지가 죽기 전에, “이러한 모습을 한 어떤 어른이 집에 오면 그 사람이 바로 石谷이므로 집안에 보관하고 있는 책 즉 잡저를 몽땅 전해주라”는 유언을 남겼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주인이 모든 책을 石谷에게 넘겨주었다. 이때가 石谷이 유학서에 접하게 된 첫 동기가 되었으며, 그 이후 열심히 공부하여 스스로 터득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그 집 주인의 아버지도 훌륭한 도인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먼저 石谷은 뜻을 크게 세워 무사독학(無師獨學)으로 「성리학」(性理學)을 연구한 결과, 그 경지가 심오하여 「경사」(經史)로부터 「제자백가」(諸子百家)에 이르기까지 통달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또한 「주역」(周易)과 「의학」(醫學)을 연구함으로써, 근세에 보기가 드문 대유(大儒)로서 그 제자가 수천에 달하였다.

이러한 훌륭한 학문에 바탕하여, 일찌기 그는 중국 송나라 때의 정호(程顥), 정이(程臣頁), 주희(朱熹) 계통의 유학인 「정주학」(程朱學)을 비롯하여, 선유(先儒)의 육경(六經) 주소(註疏)에 대하여 오로지 학문적 의심을 가졌던 것이다. 따라서 石谷은 송유(宋儒)의 육경주소(六經註疏)를 중심으로 산삭(刪削)하고 가필교정(加筆矯正)을 시작으로 다음과 같은 저술을 발표하니 사계(斯界)가 크게 늘었다.

石谷의 저술목록

1. 「毛詩·尚書·周易·春秋·周禮·儀禮」二十六冊
 「論語」一冊, 「經隨三篇」(大學 中庸 禮運) 共一冊,
 「曲禮」一冊, 「孝經」一冊, 「唐宋古詩」一冊,
 「千字」一冊, 「小學稽善」一冊, 「道德經題」一篇
 「論語」一冊, 「明心寶鑑」一篇 등을 산정(刪正)
2. 양력의 법을 논한 「浦上奇聞」一冊, 「石谷心書」一冊,
 수학을 논한 「九章要訣」一冊, 「神教術世文」一冊,
 「石谷散稿」一冊 등
3. 醫書 : 「醫鑑重磨」三冊, 「黃帝素問大要」, 「本草上下二篇」 등

한마디로 石谷의 학문과 사상은 비문에 “나의 마음은 黃帝와 老子에 유(遊)하고 行은 孔子를 守하고자 한다”로 나타난 것 처럼 공자로 돌아갈 것을 주장하고, 송유(宋儒)의 육경주소(六經註疏)를 산삭(刪削)함으로써 무능한 부유(腐儒)로부터 비난과 조소를 받았다 할지라도, 당대에 학문적으로 육경주소의 산삭을 부당하다고 시비를 걸어온 학자는 아무도 없었다.

특히 石谷은 선대의 의가(醫家)들이 「內經」을 부집(裒集)만 하고 그 진위(眞僞)를 명백히 밝히지 않은 것을, 그 대요(大要)만을 뽑아내고 그릇된 것을 바로 잡아서 이치에 맞도록 二十五篇으로 재편집하여 「素問大要」를 만들었으며, 「동의보감」(東醫寶鑑)중 「內經」의 이론에 합당한 것을 모아 다시 갈고 닦아 「의감중마」(醫鑑重磨)를 만들었다.

2. 天符經 原文解釋

1) 「一始無始一」

해석: “하나의 처음은 시작이 없는 하나다”

주해: 여기서 말하는 「하나」(一)는 근본 즉 생명력을 의미한다. 유가에서는 「하나」(一)를 태극(太極)으로 풀이한다. 또한 「하나」(一)는 天地人의 합일이라는 의미로써 항상 불변의 뜻을 지닌다. 궁극적으로 유가에서 말하는 태극(太極)은 무극(無極)에서 비롯되며, 무극(無極)은 일심(一心)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러한 「하나」로부터 우주만물이 나오는 바이다. 그러한 까닭으로 「하나」(一)는 바로 道 즉 마음「心」을 의미하는 것이다.

천부경의 「一始無始一」은 본질적 의미에서 유교의 「원시반종」(原始反終), 불교철학의 「무시무종」(無始無終)과 바로 통하는 것으로 보인다. 문자 그대로 「하나」의 의미를 완전히 안다고 함은 道를 증득한 것과 똑같다. 이것은 ‘우주가 하나’임을 뼈저리게 체득하였음을 뜻한다. 그러나 범인인 우리가 그러한 말을 사용할 경우는 삼가 두려워 할 줄 알아야 하겠다.

2) 「析三極」

해석: “하나를 나누어서 셋으로 삼고”

주해: 「하나」(一)를 관념에 의하여 나누어 보면 3극이 된다는 뜻이다. 우주에 있어서 3극이란 「天地人」이나 「上中下」를 의미한다. 원래 天地 사이에 사람(人)이 존재하기 때문에 天地인의 3극 성립이 가능하다. 天地 사이에는 사람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과 식물도 더불어 존재하고 있으나, 이중 사람이 동식물을 대표할 수 있으므로 여기서는

사람(人)만을 거론한 것이다.

한편 우리는 어떠한 물건이라도 上中下로 나눌 수 있는 바이다. 따라서 전체적 의미에서 우주의 모든 물건을 上中下로 구분할 수 있으며, 좁은 의미 즉 물질적 측면에서 개별적 물건 그 자체를 上中下로 나눌 수 있으며, 또한 질적 측면에서도 개별자를 上中下로 나눌 수 있다. 그러므로 공자는 사람을 지혜의 정도에 따라서 大人 中人 小人으로 나누기도 한다. 불교철학에서도 마음공부의 경지에 따라서 사람을 上根機 中根機 下根機 등으로 나누는 바이다.

3) 「無盡本」

해석 : “그 근본을 함이 없다”

주해 : 여기서 本이란 根本을 뜻한다. 그 근본이란 앞에서 설명한 「하나」(一)를 지칭하는 것이다. 결국 우주만물에 있어서 그 근본을 들춰내면 궁극적으로 「하나」(一)와 직결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삼라만상이 바로 「하나」(一)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지 않으면 안된다. 결국 그 근본을 함이 없으므로 우주만물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으며’, ‘태어나거나 사라지지 아니하는’ 것이다.

엄밀한 의미에서 전자는 반야심경에 나오는 「부증불감」(不增不減)과 후자는 「불생불멸」(不生不滅)과 동일한 뜻으로 대비시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 근본을 함이 없는 상태는 이른바 「무위자연」(無爲自然)의 경지와 같은 것으로 보인다.

4) 「天一」

해석 : “하늘(天)은 하나의 처음으로 삼고”

주해 : 여기서부터는 「하나」(一)에서 나온 三樞 즉 天地人에 대한 순차적 설명을 하는 것이다. 위의 본문에서 말한 「하나」(一)란 근본 즉 생명력

을 뜻한다. 결국 天이란 하나(一)를 근본으로 하여 가장 먼저 나온다는 뜻이다.

5) 「地一二」

해석: “땅(地)은 하나의 다음으로 삼고”

주해: 여기서는 地가 中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원래는 下에 해당된다.

6) 「人一三」

해석: “사람(人)은 하나의 그 다음으로 삼는다”

주해: 여기서는 人이 下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원래는 中에 해당된다. 中(中)에는 만물이 존재하고 있으며, 그중에서 동식물의 생명력은 하나이므로 사람이 동식물을 대표 할 수 있는 바, 人을 내세우는 까닭이다.

7) 「一積十鉅」

해석: “하나(一)가 모여서 백천만 가지를 이룬다”

주해: 여기서 말하는 「하나」(一)란 天地人의 하나인 동시에 生命력을 뜻한다. 십(十)이란 수의 가장 끝에 해당되는 것으로 여기서는 많다는 의미로 사용된 것 같다. 즉 수백종, 수천종, 수만종이 합하여 비로소 天을 이루며 地와 人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天地人의 수백 종, 수천종, 수만종을 통합하여 십거(十鉅)라고 일컫는다. 하나가 모여서 백천만 가지를 이룬다고 함은 결국 「하나」(一)가 삼라만상을 이룬다는 뜻이다. 이러한 「일적십거」(一積十鉅)의 근원적 의미는 불교철학에서 나오는 ‘하나의 만법으로 돌아간다’는 이른바 「일귀만법」(一歸萬法)과 상통하는 것으로 보인다.

8) 「無匱化三」

해석 : “삼이 화한다고 하여 이지러짐이 있는 것은 아니다”

주해 : 天地人이란 三極이 무궁한 조화를 이뤄서 마침내 우주만물을 만들어 낸다. 「무궤화삼」의 근원적 의미는 불교철학에서 나오는 ‘만법은 하나로 돌아간다’는 이른바 「만법귀일」(萬法歸一)과 상통하는 것으로 보인다.

「一始無始」에서 「無匱化三」까지는 우주의 근본원리를 설명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정(靜)적인 내용이 자리잡고 있는 것 같다.

9) 「天二三」

해석 : “하늘(天)이 두번째 동(動)하여 삼이 된다”

주해 : 이것은 하늘(天)이 두번째 동정(動靜)하여 上中下가 생긴다는 뜻이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삼이란 비단 上中下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春夏秋冬 석달을 의미할 수도 있다. 「天二三」부터는 우주의 근본원리를 동(動)적 의미에서 풀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동정(動靜)의 원리에 의하여 우주만물이 자유자재롭게 신통조화를 부리는 것이다.

이러한 신통조화를 음양의 원리와 연계하여 설명하는 것도 적절하리라고 본다. “성인의 천지만물을 관하여 서로 反하고 化하는 작용을 살펴 음양으로 명명한 것이다. 음양이란 이름(名)이 본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음양의 이치가 無始常在하여 있지 아니한 곳이 없다.”⁶⁾

때문에 천부경의 본의해석을 위해서는 역(易)이나 음양(陰陽)의 근본원리를 결코 떠날 수 없을 것 같다. 그렇다면 천부경 이전에 이미 역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 아닌가 한다. 또한 주역에서도 음양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바, 이미 주역 이전에 음양이 있었

6) 盧珪鉉, “儒學新講,” 삶과 認識, 창간호(1986, 5), pp.16-17.

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河圖洛書 이전에도 易이 존재한 것이다. 더우기 황제 내경에서도 음양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미뤄봐서 음양이란 '그 시작을 모른다'(無知始也)고 말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한다.

역과 음양의 선후문제는 나중에 본격적으로 논의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 다만 유교와 선 등에서는 왜 굳이 역이나 음양을 빌려쓰고 있는가란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다. 한마디로 이것에 대한 대답은 역과 음양의 원리가 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이다. 즉 역과 음양이 一道會通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천부경 때문에 음양이 나타난다고 해서 역이나 음양이 오직 우리의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지나친 국수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적절히 경계하지 않으면 안된다.

10) 「地二三」

해석: “땅(地)은 두번째 동하여 삼이 된다”

11) 「人二三」

해석: “사람(人)은 두번째 동하여 삼이 된다”

12) 「大三合六」

해석: “큰 삼이 六으로 합하여”

주해: 大三이란 天三 地三 人三 三極을 통틀어 일컫는다. 다만 여기서는 大三이란 「석달」 즉 봄 3달, 여름 3달, 가을 3달, 겨울 3달을 지칭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따라서 大三이란 4時 즉 4계절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1개월에는 절후가 2가 되므로 봄 3달에는 절후가 6이 되며, 4계절은 절후가 모두 24가 된다. 그러므로 大三이 六으로 합하는 것이다.

13) 「生七八九」

해석: “七八九를 세운다”

주해: 원래는 「生六七八九」가 되어야 하나, 앞에서 六이 나왔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한 것이다. 六七八九는 주역에서 나오는 四象의 수다. 이러한 수를 도표로 그리면 다음과 같다.

사상의 수	오행	방위	계절
1.6	水	北	冬
2.7	火	南	夏
3.8	木	東	春
4.9	金	西	秋

그러므로 「生六七八九」는 “춘하추동을 세운다” 혹은 “동서남북을 세운다”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사상의 수의 바탕은 土인데, 이것을 포함하면 5行이 이뤄진다.

14) 「運三四成」

해석: “三이 운전하여 4계절을 이루고”

주해: 三이란 각 석달 즉 4계절을 의미한다. 三이 운전하여 4계절을 이루지만 이것 역시 「하나」(一)에서 비롯됨을 결코 잊어서는 안되겠다.

15) 「環五七一妙衍」

해석: “5. 7. 1은 지극히 묘하게 붙는 수다”

주해: 5. 7. 1은 양의 수로서 묘연수 즉 가운데 수다. 여기서 「환」(環)이란 돈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그것은 계속하여 돌기 때문에 끝이 없

다는 것이다. 때문에 「환」이란 '무시무종'(無始無終)의 다름 아니다. 또한 「환」(環)이란 '간단없는' 뜻으로 풀이가 가능하다. 그렇다면 「환」(環)이란 근원적 의미에서 「一始無始一」 「一終無終一」과 상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16) 「万往万來」

해석: "만번 가고 만번 오고"

주해: 4계절 즉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되풀이하므로 처음도 끝도 없는 것이다. 이것은 그 의미상 앞에 나온 「환」(環)과 동일하다.

17) 「用變不動本」

해석: "용변하지만 근본은 움직이지 않는다"

주해: 여기서 근본이란 본자리 즉 「하나」(一)를 의미한다. 궁극적으로 16번과 17번이 천부경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8) 「本心本太陽昂明」

해석: "사람에 있어서 본인 마음과 우주공간에 있어서 본인 태양이 밝음을 받든다"

주해: 위에서 말하는 본이란 근본 즉 「하나」(一)를 의미한다. 한마디로 사람은 마음으로서 밝히고 우주는 태양으로서 밝힌다는 뜻이다.

19) 「人中天地一」

해석: "사람은 천지가운데 하나다"

주해: 궁극적으로 사람이 동식물을 대표할 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표현

이 가능하다. 달리 말하면 이것은 사람 가운데 천지가 하나임을 의미한다. 즉 사람의 마음 가운데 천지가 하나다. 이러한 근본사상은 불교 철학의 일체유심조사상과 상통하는 것으로 보인다.

20) 「一終無終一」

해석: “하나가 종하지만 근본은 종함이 없다”

주해: 여기서 말하는 근본 즉 「하나」(一)란 죽어도 「사라지지 아니하고 계속 변함이 없다는 뜻이다. 이는 앞에서 설명한 「萬往萬來 用變不動本」의 근원적 의미와 통하는 것으로 불교 철학에서 말하는 윤회를 의미하는 동시에 우주만물의 생성이치를 밝히는 바이다.

檀君天符經八十字神志篆

해석: “단군천부경 81자는 신의 뜻이 담긴 전자다”

見於古碑文, 解其字, 敬刻白山 崔致遠

해석: “오래된 비문에서 보고 그 글자를 이해하여 백두산에 삼가 새겼다”
최치원

石山子曰

해석: 석산자가 말하기를

1) 「一始無始一, 析三極, 無盡本者,」는

해석: “일시무시일 석삼극 무진본자는”

言太一無始一, 分爲三極,

해석: “말하건대 太一이 처음도 없는 하나이며, 나누어서 三極이 된 바,
是無窮之化, 無窮之化, 便是一本也.

해석: “이것은 무궁한 조화다. 무궁한 조화가 문득 하나의 근본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2) 「天一，地二，人一三者」는

해석: “천일일 지일이 인일삼자는”

言天一始一，地一爲二，人一爲三。

해석: “말하건대 天은 하나로서 처음의 하나이고, 地는 하나로서 다음이고, 人은 하나로서 그 다음이다”

是三極之道也。

해석: “이것은 삼극의 도다”

3) 「一積十鉅，無匱化三者」는

해석: “일적십거 무폐화삼자는”

言一積十鉅，至於百千萬，

해석: “말하건대 하나가 모여서 10가지가 되었다고 함은 백천만가지에 이른다”

然，其要則皆從三極而化，其化不窮。

해석: “그 조화는 다함이 없다”

4) 「天二三，地二三，人二三者」는

해석: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자는”

言第二變化，天有三極 地有三極 人有三極。

해석: “말하건대 제2의 변화로서 하늘(天)에 삼극이 있으며 땅(地)에 삼극이 있으며 사람(人)에 삼극이 있다”

5) 「大三合六, 生七八九者,」는

해석: “대삼합육 생칠팔구자는”

言兼三爲六, 以生六七八九,

해석: “말하건대 삼이 겸하여 六이 되며, 그러므로 六七八九가 나오는데”
四象之數.

해석: “이것은 사상의 수다”

6) 「運三四成, 環五七一妙衍者,」는

해석: “운삼사성 환오칠일묘연자는”

言天地之數本爲三而運成四時,

해석: “말하건대 천지의 수에 있어서 근본은 삼이며, 삼이 운전하여 4계절을 이루며”

此莫非五七一妙衍之數也.

해석: “이는 5. 7. 1이 묘연의 수가 아닌 것이 없다”

五七一者, 河圖中經數也.

해석: “5. 7. 1은 하도가운데 길수다”

주해: “5. 7. 1은 하도중경수”라고 말하는 데는 석곡(石谷)을 제외하고는 아무 데도 없다.

7) 「万往万來, 用變不動者,」는

해석: “만왕만래 용변부동자는”

言自三變化, 其用變有常也.

해석: “말하건대 스스로 세번씩 변화하고, 용하고 변화지만 근본은 떳떳함이 있다”

8) 「本心本太陽昂明者,」는

해석 : “본심본태양앙명자는”

言太一之本, 乃人之心本也,

해석 : “말하건대 하나의 근본은 곧 사람의 마음의 근본이다”

其象如太陽惟一, 萬國咸熙.

해석 : “그 모습으로 말하건대 태양의 유일함과 같으며, 만국을 함께 비추도다”

9) 「人中天地一, 一終無終一者,」는

해석 : “인중천지일 일종무종일자는”

言人居天地之中, 有生必有死,

해석 : “말하건대 사람은 천지가운데 살고, 태어남이 있으며 반드시 죽음이 있다”

是——終也.

해석 : “이것은 하나지만 하나로서 종한다”

然, 一之爲物, 無始無終也.

해석 : “그러나 하나는 어떤 물건인가 하면,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것이다”

又曰, 右神經, 決非人言也,

해석 : “또한 말하기를 오른쪽의 신령스러운 경은 결코 사람의 말이라고 할 수 없다”

則非檀君生時之有作也.

해석 : “그러므로 단군이 제실 때 지은 것이다”

恐是出於檀君神壇之上,

해석 : “삼가 말하건대 이 신령스러운 경은 단군의 신단에서 나왔다”

雖末知何代何年出,

해석 : “비록 어느 시대 어느 해 나왔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要已出神語詔人也.

해석 : “그 요이를 생각건대 성인의 말씀이 사람에게 밝게 명령한 것이다”

不爾則非神聖合道，誰能與此。

해석: “신령스러운 경은 도에 합하지 않음이 없다. 누가 능히 이렇게 지워서 감히 말하겠는가”

反復細玩，有與繫辭同旨而，

해석: “다시 그 요의를 말하면, 공자의 주역계사전에 있는 말씀과 그 중지가 같다”

주해: 천부경의 이치는 주역과 동일하다는 뜻이다.

文義尤簡奧焉。

해석: “글의 이치는 간결하고 심오하다”

石谷 李圭峻 解

V. 나오는 말

유불선 등과 같은 동양사상에 대한 전문가나 일반인의 관심증대와 더불어 국내에서 천부경(天符經)과 관련된 여러 문헌이 나타나고 있으나, 과연 그러한 문헌이 천부경의 본래의미를 제대로 전해주고 있느냐 하는 점은 필자가 생각하건대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 것 같다. 천부경 81자를 한글로 풀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어떻게 본의해석을 정확하게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때문에 그것은 유불선에 근거한 본의해석과 객관적인 해석자의 주해가 이뤄지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나온 천부경 문헌에는 본의해석보다는 편견이나 착각에 의한 연구자의 자의적 주해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논리적 설득력이 부족한 점이 공통적이라고 하겠다. 그러므로 필자는 천부경 해석에 있어서 石谷 李圭峻 先生の 天符經 解를 근본으로 하여 본의해석과 주해를 시도하였을 따름이다. 다만 여기서 언급되지 않은 「천부경 본의해석의 필요성, 석곡과 당대 유학자와의 교류, 석곡삼세운영, 소문학회」 등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

기회에 발표하고자 한다.

필자는 앞으로 동양사상에 입각한 천부경의 본질적 의미를 단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

The Real Intention Interpretation of 「Cheon Pu Kyung」(天符經)

Cheon-Hyo Lee*

〈Abstract〉

Recently Orientalism becomes the center of public interest. So many books related to 「Cheon Pu Kyung」(天符經) are published in Korea. But the present writer thinks that such literature doesn't communicate us, as it is, the original meaning of 「Cheon Pu Kyung」. Most specialists concentrate on not so much the original text interpretation as annotation in reference to 「Cheon Pu Kyung」. If so, it is difficult for us to find out precisely the real intention of it. Consequently the present writer in the interpretation of 「Cheon Pu Kyung」 makes plans to carry out the real intention interpretation and annotation based on 「Cheon Pu Kyung」 interpretation of Seok-Kok(石谷) Lee, Kyu-Jun(李圭峻).

Together, the contents on which this article is based on were investigated as follows :

- ① words go into
- ② the limit of the original text interpretation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Dong-Pusan Junior College

③ why does it need the real intention interpretation of 「Cheon Pu Kyung」

④ the interpretative limit of 「Cheon Pu Kyung」 literature

⑤ 「Cheon Pu Kyung」 interpretation of Seok-Kok(石谷) Lee, Kyu-Jun(李圭峻)

⑥ words go out